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

JUNE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98

COVID-19를 맞은 우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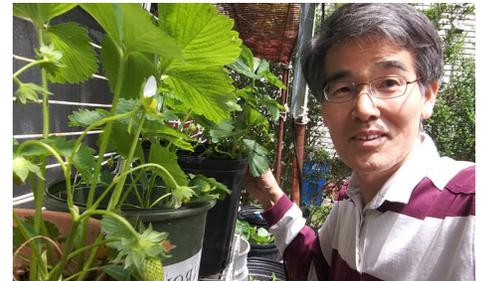
숨 막히는 COVID-19의 압력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골든클럽 회원들이 자랑스러워 현재 삶 속의 모습을 모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 더 많이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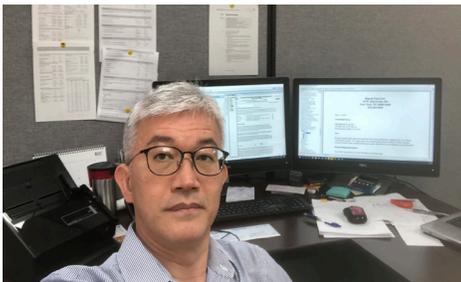
Coronavirus lock-down이후 처음으로 Stamford Golf Course에서 outing 한 김영덕, 정도현 회원



오랜 동안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서 가꾸어 놓아 봄을 맞이하여 형형색색의 꽃이 핀 정원에서 광선섭 회원



취미삼아 가꾸는 자그마한 텃밭에 매일 물을 주며 상추, 썩갓, 딸기 등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뉴노멀'이 된 오성 회원



코로나사태에도 맨하탄의 회계법인 사무실을 꾸준히 출근하여 열심히 일한 김병순 회원



Overpeck공원이 가까이 있어 시간 날 때 산책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가끔 뒷뜰 피크닉테이블을 찾는 우규환 회원 부부



5년전 뉴저지로 이사올 때 심은 매실나무가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매실주를 준비하고 있는 임호순 회원 부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골든클럽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위하여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편집위원들



Mothers Day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정해민 고문 (왼쪽은 함께 사는 작은 딸 가족/오른쪽은 Zoom으로 축하하는 큰 딸 가족)

골든클럽 비상지원센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 센터는 여러분의 도움요청이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코로나 감염만이 아니라도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신 회원
2. 코로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그간 질의해 오신 몇 분의 질문 사항을 요약하면;

1) 2020 Census 를 못했는데요? <https://www.2020.census.gov>

2)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나 대통령 선거 (General Election) 때 투표장에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https://www.nys.vote.gov>

부재자 투표(Absentee Ballot)는 뉴욕주 예비선거의 경우 6월 16일 까지임.

요청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https://www.mymvc.state.nj.us>

4) COVID-19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 뉴욕총영사관의 공지사항을 요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정해민: 551-574-2015 haeminchung@gmail.com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윤현남: 973-541-9970 yoon.hyun.nam@gmail.com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소식]

이사회 경과보고

이사장 정해민

COVID19로 인하여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난국에 동문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그간의 뉴욕지역 동창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월 개최예정이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가 취소되었고 당초 동창회에서 계획하였던 음악회, 미술 전시회 등도 전부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제41대 뉴욕지역 동창회의 임기가 6월 말로 종료되고 예년 같으면 7월 초순에 제 42대 정기 이사회 겸 총회가 소집되고 차기 회장단이 출범되어야 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회가 금지되어 있고 출입조차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칫했으면 동창회가 마비 상태에 처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뉴욕 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에 상임이사 및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현 회장의 연임을 결의 한바 있었음은 선경지명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공백기에 큰 혼란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 집니다.

앞으로 출입이나 집회가 자유스러워져 총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동정

• 이기덕 회원 (농대56)께서 4월30일에 숙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인 이준(간호대) 동문의 부군이시며,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하셨었는데, 5월5일에 장례를 치르고 Rockland Cemetry에 안장 되셨습니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CI의 핵심 멤버인 김영덕(공대53), 정도현(공대57) 회원께서 Coronavirus lock-down이후 처음으로 Stamford Golf Course에서 outing을 가졌습니다. 청명한 날씨, 잘 관리된 코스여서 맘에 쏙드는 outing이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골프 못 친 탓으로 나쁜 습관들을 다 잊어서 오히려 좋은 스코어를 냈다 합니다.

• Connecticut의 social distancing 규정은 NY, NJ에 비해 상당히 관대해서 4-some이 가능하고, 입장시만 마스크가 필요하고, 식당이 열려 음식을 take-out할 수 있다합니다. 가능한 한 매주 outing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 골프를 무척 좋아하는 박기환(문리58) 회원과 합창을 좋아하는 박현미 사모님이 골든클럽에 입회하여 코로나 사태 전까지 사모님은 동문합창단에서 열심히 합창 연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나, 정작 박기환 회원은 골프대회 참가는 물론 그동안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는데 5월13일에 홍종만부회장과 Wallkill 골프장에서 회동했습니다. 80대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건장한 체구에 골프백을 메고 치셨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

손대홍 (미대 79)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의, 설레는 웃음은 빛 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 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음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 꽃 피우길, 피우길 피우길 피우길”

이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없어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쓴 곡이라고 한다.

사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제 아버지는 그 시절의 대부분 아버지처럼 무척 권위적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집안에서는 곧 법이어서, 혹 자식의 생각이 달랐을 때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는 해외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던 것을 보면 사업에 바쁘기도 하셨겠지만 가족여행은 곧 어머니와의 여행을 의미했고, 그나마 유일한 가족시간이 주말의 가족 외식이었는데, 주말에 아버지를 따라 외식을 하러 갈 때는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게 식사를 해야 하고 형제 간에 다투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아서 어린이로서는 그리 즐겁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신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연세가 드셔서 지병이 생겨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왜 그런 기억이 없는지 참 신기하다. 아버지가 칠순을 지나시며 지병 때문에 걷기 힘들게 되니 어머니의 손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그 때는 사이 좋은 부부의 손잡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나는 그래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 아이였고, 중학교 시절의 반항기를 거쳐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진로를 위한 대학 선택도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으니 아버지와는 한 번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어 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본 기억도 없다. 그러다 3년만에 처음 식사를 한 것이 대학교 합격 발표날이었는데, 제과점에서 가장 큰 케익을 사가지고 들어오셔서 별말씀 없으셨던 아버지와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입학을 축하해 주시며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것이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아버지와 함께 한 여행이다. 당시만 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고 주말도 골프장대로 밤늦게 약주를 하고 들어오시던 기억이 난다. 연세가 드시고 사업이 어려워져 집에 계시고 지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을 하시며 어머니를 대하시던 모습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여간 어릴 때부터 내 각오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창시절도 그렇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집안 행사에서 누군가 내가 아버지 닮았다고 하면 뭐라 하던 대담조차 않고 다른 곳을 보고는 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생일이나 학교 행사는 해외출장의 일정을 바꿔서라도 함께 하려 했고, 가족을 위해서 요리도 많이 하고, 틈나면 가족여행도 하고 집사람과 다닐 때 손잡는 것을 좋아했다. 저녁은 가능한 집에서 가족들과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키우고자 애썼다. 아마도 내 나름에는 아버지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랜만에 내 백일 때 찍은 가족 사진부터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사진까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진 속의 아버지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내가 아버지 모습을 너



사진 아래 왼쪽에서 2번째가 저자

무도 닮아, 김진호의 노래가 나오기도 전이었지만 노랫말 ‘외로운 어느 날 꺼내 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처럼 결국 아버지의 모습이 된 나를 보며 다시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탓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하고자 했던 몇 가지의 걸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랐던 시간 속에서 가족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모습이 달랐을 뿐 결국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모습의 시간들은 아버지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얼마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을까, 어머니의 손을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훌륭한 신자는 못되지만, 예전 신부님의 강론 중 한 구절을 가끔 떠올려본다. ‘부활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가졌던 본 받아야 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뒤늦게 아버지를 마음도 닮아보고자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아버지 생각도 이리 슬픈데, 구십이 훨씬 넘은 어머니조차 떠나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한 내 아쉬움이 얼마나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을 찾아가 뵈기도 어려운데,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들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멀리 한국에서 오늘도 자식 걱정에도 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여러 분께서도 Youtube에서 ‘김진호의 가족사진-불후의 명곡’을 찾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모습은 부모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잠시 시간을 보내 보길 바랍니다.

Bye Bye, Covid-19 !

곽선섭(공대61)

집콕시대를 보내면서 몇 가지 단상을 생각나는 대로, 손가는 대로 적어 봅니다.

단상 1. Covid-19의 위엄이 떨어진 사례

저의 자형 엄백용(84세)씨는 우리 동문은 아니나 골든클럽에 지인이 많고, 심신이 젊고, 호인으로 우리 golf 대회에 단골 게스트입니다. 근자에 Covid-19에 걸려 약 2달간 투병 후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는 항상 가깝고 옆에서 지켜본 투병 과정을 적어봅니다.

갑자기 체온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간 후 내려오지 않고, 식욕이 떨어져 심한 몸살 감기로 생각한 처음 2주, 그 후 숨가쁜 증상까지 보여 test를 의뢰해두고 기다리며 1주, 증세가 나빠져 Covid-19로 거의 확진하고, 거처를 하숙집에서 아들집으로 옮겨 자가격리에 들어간지 3일후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 바로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치료 5일후 퇴원하여 다시 아들집으로 돌아가 격리를 시작한지 3주후인 며칠 전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본인은 생사를 넘나들었고 주변, 특히 아들내외 손주 온 가족이 초비상 상태였는데 이제는 happy ending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은;

1) 본인도 어떻게 발병이 되고, 치유가 되었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고 입원 동안 말라리아 치료제 투약한 게 전부로 의사들은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 하고, 기적을 받을 만큼 신앙심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주변에 베풀 은덕이 커 그 덕으로 나왔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온 답은 역시 그 자신의 면역력, 나이보다 강한 체력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조물주가 누구에게나 준 자생력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2) 저의 자형이 자주 하는 이야기로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 중 트럭 밑에 깔려서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일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생사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낙천적이고 그런 정신력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3) Covid-19 바이러스는 특히 감염자의 기저 질병, 당뇨, 고혈압 등과의 합병증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지병이 없는 것도 이유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보면 누구나 경각심 갖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4) 증세를 보이기 직전 같이 골프, 식사도 같이 한 우리 포함 한 모든 분들이 모두 무사한 것은 천만다행이고, 오히려 그 덕에 모르는 사이에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어 Thanks, God bless you.

단상 2. 내 집 뒷마당 golf green 예찬.

선견지명으로 이런 날을 일찍 예견하고 뒷마당에 70야드까

지 칠 수 있는 golf approach green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난 두달간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뒷마당에 머물면서 매일 한두시간씩 골프를 쳤으니 주변에는 아무도 이런 기록이 없을 것 같습니다. Pitching, chipping은 실제공으로 그리고 크기, 구질은 같으나 거리는 적게가는 soft 공으로 driver도 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있어 club간의 특성, 비탈, 특히 내리막이고 밭 밑 rough에 놓인 공 치는 법, slice 방지법 등에 감을 확실히 잡아서 실전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전에는 'bogey성 double bogey'가 주였는데 이제는 'par성 bogey'가 주가 될 것 같고 종전 내 별명이 tiger mouth(호구)였는데 이젠 'big hand'로 불리고, 핸디가 잘못되었다는 말도 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또 듣는다 혹은 빈 강통이 시끄럽다 말하는 주변들에게 한 번 잘 보일 차례인데 -- 어떻게든 그 동안 과외 지출을 막아준 great Covid, my backyard, Thanks!

단상 3. 건강식 오구잡탕 소개

내 체질이 원래 빌빌거리는 편이라 싸움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포함 이긴 적이 없는데, 이 난세를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 평소에도 내기골프, 내기바둑으로 악명을 날려 왔고, 지금 이 글을 밤을 지새우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쓰고 있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에 비결을 조금 공개하면 전부티고집스럽게 애용하는 내가 연구 개발한 음식입니다. 식물성이 주인 탕류로 이름하여 오구잡탕, 10-20 종류의 식품재료를 조금씩 섞어 끓인 것으로 양파 가지 토마토 마늘은 기본이고 각종 야채 감자 옥수수 두부 콩나물 라면조각 등에서 두세가지 정도는 넣고 고기 한조각, 새우 한두마리도 들어가고 비빔소스로 간을 맞추고 계란을 풀기도 하며 여기에다 포도주 반잔을 곁들이면 소화걱정이 없고 사시사철 삼시세끼를 먹어도 물리지 않는, 편식과는 거리가 먼 음식입니다. 이를 혹자는 꿀꿀이죽, 부대찌개라 부르기도 하나 오히려 인기있던 샷부사부에 가깝고, 스페인 전통음식 파에야(paella)를 upgrade해서 내 체질에 맞춘 신토불이 음식이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Thanks to 오구잡탕!

Covid-19 Pandemic의 끝은 결국 어떻게될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하지만 결국 이것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잘 극복이 되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
Bye Bye, Covid-19 !

COVID-19와 CARES Act

김병순 (사회대82)

COVID라고 하면 요즈음 조금 지겨운 느낌도 든다. 모든 방송이나 신문 등의 칼럼 등이 거의 80% 이상 COVID의 현황이나 COVID 때문에 변화된 생활모습 및 COVID를 소재로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의 생활 전부가 COVID에 의해 지배되는 기분이어서 말이다. 그렇다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소재로 글을 쓰려고 하는 지금 다소 이율배반적인 느낌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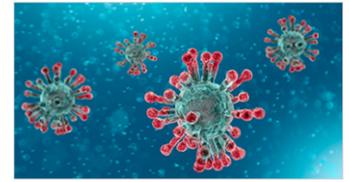
3월 중순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분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거의 모든 business가 shut-down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수 있나 하는 큰 걱정이 엄습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CARES Act라는 것으로 2.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경제에 수혈하는 조치를 취했다. CPA들은 많은 client 들로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즉 stimulus check,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PUA (매주 \$600), PPP (종업원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를 지원하는 package) 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다. 나도 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장치 이어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느라 원래 CPA로서 그 시기에 해야할 Tax Return 업무를 제대도 하지 못하지만 바쁘게 지냈던 것 같다.

우리가 stimulus check도 받고 PPP등 CARES AC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즐겁겠지만 한편으로 2.2조달러의 정부 지원으로 미국의 정부부채가 3조 달러 이상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마냥 즐거워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든다. 미국 달러가 국



Economic Impact Payments

Get answers to your questions



Coronavirus Tax Relief

IRS taking steps to help taxpayers

제적 기축통화로써 3조달러 부채가 증가된다고 미국 국채가 다른 국가 및 기관들이 모두 매입하여 소화가 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국가부채가 너무 크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뢰도에 손상을 입어 점차 미국 달러를 기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물론 그 이후에 세상의 경제적인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미국에 확실히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3조달러를 초과하는 2차 지원을 위한 CARES II Act를 상정한다고 하니 그 지원으로 인하여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부채의 증가 우려로 나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이 앞선다.

최근에 상담한 client 들 중에는 PPP를 받음으로 business 문을 닫음으로 일을 하지 못하던 종업원들에게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냐는 제의에 대하여 실업수당 및 PUA인 주당 \$600을 받아서 그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의 지원이 이율배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다소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쪼록 이런 COVID Crisis가 경제적인 손실이 Minimum으로 빨리 지나 가 주기를 소원합니다.

Latte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 스스로 "꼰대" 여부를 확인하는 육하 원칙



1. 내가 누군지 알아? (Who)
2. 내가 뭘 안다고 그래? (What)
3. 이게 어디서 감히? (Where)
4. 내가 왕년에는 (When)
5. 내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How)
6. 내가 왜 그렇게 해? (Why)

-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조언하지 말라, 그건 조언이 아니라 참견이다.
3.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며, 1년전 일처리 방식은 구석기 유물이다.
 4.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을 내지 말고 물어라.
의견을 듣는 척 하면서, 미리 정해 놓은 주장을 강요하지 말라.
특정 대담을 강요하는 질문도 삼가라.
내 말이 옳더라도 상대가 듣기 싫어하면 짜증나는 소음 공해일 뿐이다.

○ "꼰대" 예방 5계명

1.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잘못 기억할 수 있다
들은 건 믿지 말고, 본 건 반만 믿어라.
2.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조차도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5.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지금의 나를 욕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의를 베풀고 지갑을 열 자신이 없으면 입 다물어라.

Post-Corona 세상 어떻게 바뀔까?

오성(법대76)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 사회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몇 개월 사이에 감염자 154만명, 사망자 9만명을 넘었고 전세계적으로는 감염자 490만명, 사망자 32만5천명을 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과연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통제할 수 없고 결코 완전히 퇴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독감처럼 해마다 재발하는 계절병이 될 수 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51억명이 감염돼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생길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로 크게 달라진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포브스'폴리티코' 등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9.11 테러사건 이후 공항에서 검색을 받을 때 신발을 벗는 것이 '노멀'이 되었는데 앞으로 미국인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식당, 치과외사를 방문할 때는 '건강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는 말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위기"라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방법인 악수가 사라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팔꿈치나 주먹을 마주치는 인사는 이미 낯설지 않다.

대면 접촉이 없는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이전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에선 커피 주문부터 제조, 서빙을 모두 로봇이 해내는 세계최초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 '스토라트'가 얼마전 오픈했다.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본격화하고, 병원들은 원격 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닥터 오피스에 전화해서 예약하면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랩탑 등을 이용해 닥터와 Zoom 영상통화를 한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감염 진단을 위해 '미트라(Mitra)'란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열 감지 카메라를 들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게된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인들은 외식에 많은 지출을 해왔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콕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로 요리법을 배우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카페, 식당 등 많은 대면업소들이 고객감소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언급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5G 통신 등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장, 기업, 가정에 더욱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AI 자동화가 진행되면 머지 않은 미래에 현재의 많은 직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 아메리카항공은 조종사 715명에 대해 퇴직 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들도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다. J.C.페니가 파산신청을 했고 고급 백화점 니먼 마커스도 43개 매장이 코로나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파산보호 신청서를 냈다. 메이시스는 지난 3월 775개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반면에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배달 업체는 호황을 누렸다. 네일업 등 고객을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와 온라인 언택트 비즈니스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많은 비즈니스가 온라인 방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전염병 통제를 명분으로 각국 정부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부가 득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3억 주민에 재택명령을 내린 인도 정부는 주민의 위치를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는데 이미 9천만명 이상이 앱을 다운로드받았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군대 내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식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기업 오우라(OURA)는 체온, 호흡, 심장박동을 센서로 모니터해 코로나 감염을 조기경보하는 반지 모양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미 개발했다. 오우라는 의료진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록펠러신경과학연구소, 웨스트버지니아대학 등과 함께 진행중이다. 우프(Whoop)는 골프선수들이 많이 착용하는 피트니스 트래커인데, 우프사 역시 호흡수 변화와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만은 실천해요!

- 마스크착용과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세요
- 친구와는 전화·SNS로 소통하겠습니다
-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K·W·A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와 '면역력 향상(Immune Boosting)'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뉴노멀'이 되었다. 온라인 미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씻기 등은 감염을 막는 '물리적' 방법이다. 샴핑을 비롯해 모임 참석 등 사회적 활동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면역력'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건강한 생활습관에 누구나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요즘 '닥터쓰리' '김소형 채널H' '이재성 박사의 식탁보감' 'Dr. Sten Ekberg'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틈틈이 즐겨 보고 있다. 평소에 충분한 수면, 하루 30분 걷기, 햇볕쬐기, 적정 체온 유지, 당분 섭취 줄이기 등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OVID-19 --Wrath of God (A Personal Opinion)

정도현 (공대 57)

It has been over two months of Zombie-like existence into oblivion. Upon the final phase of my life, although I survived every crisis and overcame every close call, the current crisis somehow touches my very inner cord of chilling premise. I am wondering how I would explain the current Corona Virus Pandemic to our next generation. Would I tell them the chronology of the events or would I philosophize the meaning of the events? I would go with latter.

It is a widely accepted fact that Covid-19 occurred as a Random Accident of a nature. For me, it is rather a preordained Perfect Storm of a Divine Power. Besides my gut feeling, every metaphorical indication points to one conclusion that the Nature (God) is getting even with Human Being with message -- "Fellas, time-out, take a pause before we all fall into an apocalyptic Black Hole."

Against repeated warnings, human beings had been abusing the environment and depleted

the wildlife's habitats. Global Warming, resulting primarily from the use of fossil fuel by a few large industrial nations, created rising sea level, sub-Saharan droughts & famine, and the extreme global weather patterns. Recent rise of right-wing national isolationism also brought waves of refugee crisis to an unrepresented humanitarian disaster. Exceptionalism overshadowed wisdom of a lesson that says, "We are all together in a lonely ship called the Planet of Earth."

Corona Virus is a nature's revenge to the human beings of their arrogant reckless behavior. At the moment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e world-wide scale of devastation. But one thing is very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by a wide margin, most affected. It is no brainier to understand the fact. Although Trump keep saying, "I am not responsible.", once the Pandemic lands on your doorstep, you own it. Instead of political maneuvering, good leaders accept responsibility and put a plan in place and fix the problem.

President Truman once said, "Buck Stops Here." That meant, "Don't Put Aside the Responsibility."

Corona Virus is a faceless enemy that creates a paradoxical problem -- Heath vs Economy. Not easy but can be done. This is where we need a creative leadership like FDR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is Pandemic exposed the fault line of the underbelly of the American society --- a great divide of social / economical injustices. Disproportionate rate of



fatalities occurred among the minority populace due to the poor health with the lack of health care and substandard living conditions. Nevertheless, it also brought the best of America that includes all the frontline workers, particularly health care people, many volunteers and the local bi-partisan political leaders.

At the moment, we are still hibernating, but at the end, I hope, we will come out stronger.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e lessons of Pandemic (Wrath of God) that calls for a significant fundamental reshaping of our attitude toward the nature & socio-economic structure as a global community.



회원 명단 (102명 / 2020-05-17)

강교수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최철용
강에드	김영만	손대홍	이강홍	장동만	최학주
강영선	김우영	손옥화	이국진	고애자	주재옥
계동휘	김익성	송근숙	이기덕	정도현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송용길	이대연	정수일	한용오
곽선섭	김재경	송현자	이대영	정해민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학린	이범선	조달훈	허용웅
구달회	김종울	신진식	이수호	조승자	홍사만
권영대	김장수	이정자	이전구	조상근	홍정표
권정택	김태일	신원철	이정필	주상선	홍종만
권태전	김현중	신응남	이종대	주재양	홍예경
김광수	노용면	양인회	이종석	진봉일	홍지복
김광현	민준기	오성	이준행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순문	이준희	최병우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용대	최수용	
김문경	배상규	오인석	이행순	최순채	
김문언	성기로	우규환	이홍빈	최준희	
김상만	손갑수	유무영	임도혁	최진영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5-17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 취소
4월	16 (목)	Opening Golf Outing - 취소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 취소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6월	11 (목)	Golf Outing - 취소
	24 (수)	Picnic, Pizza Party - 취소
7월	9 (목)	Golf Outing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8월	6 (목)	Golf Outing
	20 (목)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9월	3 (목)	Golf Outing
10월	1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22 (목)	Hiking
	29 (목)	Season-off Golf Outing
2021년		
1월	27~31	Florida Golf Trip
3월	27 (토)	신년교례회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54명 / \$5,400 / 2020-05-17)

강에드	김인형	손옥화	오순문	이준희	홍사만
강교수	김재경	송근숙	오유섭	이행순	홍정표
계동휘	김종울	송용길	오인석	임호순	홍종만/
곽상준	김현중	송현자	우규환	정해민	홍예경
곽선섭	노용면	송학린	이강홍	주상선	
권영대	박기환	신원철	이국진	주재양	
김병순	박희병	신진식/	이범선	최순채	
김상만	배상규	이정자	이용대	최준희	
김영만	손갑수	양인회	이정필	한용오	
김우영	손경택	오성	이종대	한태진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12명 / \$5,100 / 2020-05-17)

곽선섭 100	송학린 500	이행순 200
김종울 2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성기로 300	이강홍 300	정해민 500
손경택 1,000	이준행 1,000	한태진 500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문경 약대61	송현자 가족
김우영 상대60	신응남 농대70
김인형 미대59	최병우 공대67
손갑수 약대59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공적집회가 허용될 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대체합니다

골든클럽 회원 귀하

아래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